

“해인사 협의기구 환영”
환경·신행단체 논평

해인사 대불봉사에 대한 산중총회 관련, 불교환경연대 등 16개 불교 환경·신행단체들은 6월 28일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불교계 단체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바람직한 불사문화 정착을 위해, 해인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6월 29일 해인사로 ‘불사의 목적’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 훼손’ ‘문화재 보호’ 등 23개 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강신우 기자

동식물 천도제 열린다
7월10일 강릉 현덕사

동식물 수록고헌 천도제가 열린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제3회 동식물 수록고헌 천도제를 봉행한다. 천도대상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을 비롯,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동물, 환경 파괴로 피해를 입은 동식물,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실험용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 2003년 조류독감으로 폐사된 조류 등이다. 주지 현종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사람들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동식물 수록고헌 천도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33) 661-5878.

김원우 기자

백용성조사 탄생 기념
141회 봉찬대제 봉행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정수 죽림정사(조실 도림)는 6월 25일 백용성조사탄생 제141회 봉찬대제 및 6·25 일제 영거천도 법회를 개최했다. 봉찬법회는 장재영 장수군수와 김상두 전장수군수, 장수군 불자연합회 백사인 회장,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유종현 이사장, 백용성조사유신현후회회 한수승행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죽림정사는 이날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성역화불사 추진도량 관리자·화장실 기공 개토제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여성불자 교육시스템 만들자”

제9회 여성주간 맞아 체계적 연구 필요성 제기

여성불자들이 뛰고 있다. 수행과 실행에 적극적이고, 스스로의 가치와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6월 3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나 사찰 실행활동 현황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아직도 면발치다. 이러한 가운데 제9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여성불자들의 노력과 잠재력을 담아낼 체계적 연구구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여성의 종교인구(61%)는 남성보다 14.6%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여성불자대회 등의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주변인 불자’를 뛰어넘으려는 여성불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시민선방 수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0%에

달하고 여성불자들의 실행활동도 활발하다. 법회 참석 열의나 봉사활동 참여도는 남성불자를 훨씬 앞지른다. 최근 들어서는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성불자들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냉담하다.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기도와 염불 등으로 대표되는 수행법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이화여대 한국어성언어연구 김경희 교수는 최근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여성불자들의 삶에서 본 생명 여성의 윤리: 작은 해법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여성 불자들은 우수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향의 서원을 시방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구 페미니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유바라밀의 실천수행 등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석과 가치발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제도 마련은 이에 앞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창숙 자문위원은 “한국 여성불자 활동의 역사적 고찰과 과제” 발표를 통해 “여성불자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세워 여성의 자각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수행자의 여건에 맞게 고안한 프로그램은 물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개발도 전무한 상태라는 평가에서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현옥 교수는 종합학교나 강원, 사찰 차원에서 여성불자 수행과 교육을 전담할 기관과 연구소를 설립·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불자 개인의 정체성 확립은 최우선 과제다. 연초에 불교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여성불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실행활동 중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 같은 여성 재가불자들에게 겪은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계에 뿌리박힌 여성비하 풍조를 여성이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단 내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요소를 분석시키고 차마 불교의 이미지를 과감히 떨치는 것을 여성불자 정체성 확립의 주요 과제로 꼽는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연구개발실장은 “여성불자 성장방안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여성불자들의 성향과 요구를 꼼꼼히 분석한 후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남치는 여론을 수렴해 앞서 면밀한 탐할 기관과 연구소를 설립·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신우 기자 theiswh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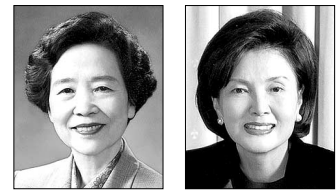


한자리에 모인 불이회 회원들. 창립 30주년을 맞아 젊은 회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불이회

“생활불교·不二정신 실천 30년”

재가여성불자단체 ‘불이회’ ‘불이상’ 제정 등 인재불사 힘써

불법의 외호와 실천의 길은 멀지 않은 듯했다. 함께할 도반이 6명뿐이라는 것, 살림밖에 모르는 주부들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방 세계를 오가며 보시행에 매진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이 벌써 30년이다. 재가여성불자단체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74년 한 화랑을 빌려 시작한 불이회는 윤용숙, 박명자, 강말원 씨 등 6명이 만든 모임. 현재는 40여명의 회



윤용숙 명예회장

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만, 당시는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도 심했고 불교 내 실행단체의 활약 역시 미미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발기인들은 어렵사리 여성불자 모임을 꾸린 이래 원만한 회향의 원력을 품고 30년을 달려왔다. 불이회의 가장 돋보이는 활동은 바로 ‘인재불사’를 위한 실천에서 입을 수 있다. 불이회는 창립 3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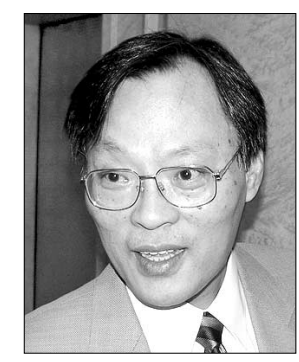
년을 맞아 ‘불이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2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불교나 관련 학문의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보인 이들, 음지에서 전법의 꽃을 피운 불자들을 선정해 시상한 것이다. 불이상에는 국내외 총 재가자들 6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이회는 이러한 외부적인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 회원을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신념으로 불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불교대학 등의 교육과정이 생소하던 시절, 그들은 직접 발표를 맡고 다니며 각계각층 선지식들에게 강의와 설법을 청했다. 광덕 스님, 탄허 스님, 이기영 박사 등 그들이 찾아 모

신 이들은 100여명에 이른다. 또한 단체 내에 금강경독송회를 조직해 여성불자가 주축이 되는 생활불교의 터를 닦기도 했다. 이밖에도 30여년에 이르는 공포교 활동, ‘불교 복지’의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의 양로원과 교도소 봉사활동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윤용숙(68·여성문제연구소 회장)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불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점검하고 그것을 사회에 회향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며 “30주년을 기념해 젊은 여성불자들을 영입, 불이 정신을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펼칠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 19회 불이상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강신우 기자

“사기꾼 공양주 조심하세요”
사찰의 공양주가 사찰 명의로 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북 영주의 모사찰 주지 스님은 “김 모씨(47)가 지난해 11월 공양주로 들어와 최근까지 7개월 여간 머물면서 승복집 등에 사찰

불자·일반인 함께 듣는 방송 지향

인터뷰 불교방송 신임 이성언 사장



“불교방송은 불교신자를 비롯해 일반인도 애청하는 방송이 돼야 합니다. 듣지 않는 방송에서 10번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방송에서 1번 말하는 것이 포교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방송 내용도 많이 연구해야 하고 부처님 말씀도 방송에 적절하게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취임한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사진)은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사장이 바뀐다고 회사가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이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며 서서히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KBS 기획재정으로 공무원의 첫 발을 내딛었고 해외 근무 때 외국 방송사의 경영상태 분석을 맡는 등 방송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방송사 경영이나 방송 운영에 대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저의 경험이 불교계에 보탬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재단은 7월 1일 제 52차 이사회를 열고 이성언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 진흥원의 불교방송 사장후보 복수선거 △ 조직개편, 부장급 이상 간부 인사권 이사와 협의 △ 전무·상무 임명 이사와 협의 등 정관을 개정했다. 강지연 기자

“강의석 군 강제 전학 철회하라”

시민단체, 학내 종교의식 강요 중단 촉구

서울 대광고 강의석 군의 학내 강제적인 종교행위 거부와 관련(본지 480호 3면기사 참조)해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등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종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6월 30일 대광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석 군에 대한 징계철회와 강제전학 시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무리 특정 종교적 견해이념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를 넘어 학생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강제 종교의식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측의 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강 군에게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강 군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광고측은 강 군의 부모에게 26일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강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요구대로 전학에 동의했다가 29일 이를 철회했다. 강의석 군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vhdrytkfkf)를 통해 강제적인 종교행위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강의석 군의 학내 강제적인 종교행위 거부와 관련(본지 480호 3면기사 참조)해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등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종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6월 30일 대광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석 군에 대한 징계철회와 강제전학 시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무리 특정 종교적 견해이념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를 넘어 학생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강제 종교의식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측의 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강 군에게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강 군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광고측은 강 군의 부모에게 26일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강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요구대로 전학에 동의했다가 29일 이를 철회했다. 강의석 군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vhdrytkfkf)를 통해 강제적인 종교행위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www.songchol.net

2004 해인사 백련암 여름수련법회

불보살님께 귀의함을 성스럽게 여기며 '자기를 바로봅시다'라는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곳, 해인사 백련암!!

안내말씀

백련암을 아껴주시고 관심 깊게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께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여름수련회의 기쁨을 전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전통사찰의 품위와 성철 큰스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 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스스로 뒤고자 하는 불자님들과 모든 분들께 산사의 체험과 출가사문의 생활을 바탕으로 실행 생활의 원력을 가일층 증장시키고 수행자의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며 개인화된 사회에서 대중들과 화합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 수련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의 역할을 인지하며 자연을 아끼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강인함을 기르는 데 목적을 삼아 진정한 승가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2004년 7월 14일부터 2004년 8월 15일까지 5차례 걸친 3박4일간의 기수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2004년 7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5일까지 약 한달 기간동안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단기 출가 수련법회'를 갖습니다.

수련회 일정

- 일시: 2004. 7. 14 ~ 2004. 8. 15
- 장소: 해인사 백련암(관음전, 고심원)
- 기수별 일정
 - 1기(대학원생) 7월 14일 ~ 7월 17일
 - 2기(고등부) 7월 20일 ~ 7월 23일
 - 3기(중등부) 7월 27일 ~ 7월 30일
 - 4기(초등부) 8월 3일 ~ 8월 6일
 - 5기(일반 및 가족수련) 8월 10일 ~ 8월 13일
- 입재(시작): 각 기수별 입재 당일 정오
- 회향(마침): 각 기수별 회향 당일 정오
- 회비: 일반수련회 동참금 5만원, 특별수련회 동참금 30만원
- 등록접수: 백련암 원주실, 전계사(수계법사): 원택(圓澤)스님 수련회 담당 법사: 일철(日鐵)스님
- 특별수련(단기 출가수련)
 - 대상: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일시: 7월 20일 ~ 8월 15일까지
 - 법복과 교과과목 필히 지참
- 문의전화: (055) 932-7300, 011-9330-1615 (회향하는 기수별 수련회 입재일 5일전까지 접수 전화접수가능)
- 통장입금계좌: 농협 843174-51-010195 (예금주: 여무의)

수련회 프로그램

오전 3시	첫배례 - 발심 의식	동배례 - 원력의 날	셋배례 - 정진의 날	넷배례 - 회향의 날
4시	기상	기상	기상	기상
5시	새벽예배	새벽예배	새벽예배	새벽예배
6시	수행교과(1) 불우공양	수행교과(2) 선체조	수행교과(3) 선체조	수행교과(4) 선체조
7시	발우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8시	홍익	대중소	대중소	대중소
9시	반갑습니다	수행교과(5) 인도대(대)제사(제사)의 발원(발원)	수행교과(6) 능엄주족수	수행교과(7) 자성
10시	도라, 봉사예행	사시불공	사시불공	수계시(회향)
11시	사시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아래와같이 2배례 상가하며, 주(주)만 행(가)고
12시	오리엔테이션	원소음	원소음	
오후 1시	입재시 및 기념사(선불명)	수행교과(8) 마애불(현)시(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9) 마애불(현)시(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0) 마애불(현)시(현)의 발원(발원)
2시	3000에 (1부)	수행교과(11)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2)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3) (현)의 발원(발원)
3시	3000에 (2부)	수행교과(14)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5)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6) (현)의 발원(발원)
4시	3000에 (3부)	수행교과(17)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8)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19) (현)의 발원(발원)
5시	3000에 (4부)	수행교과(20)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1)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2) (현)의 발원(발원)
6시	3000에 (5부)	수행교과(23)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4)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5) (현)의 발원(발원)
7시	3000에 (6부)	수행교과(26)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7)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28) (현)의 발원(발원)
8시	3000에 (7부)	수행교과(29)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0)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1) (현)의 발원(발원)
9시	3000에 (8부)	수행교과(32)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3)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4) (현)의 발원(발원)
10시	3000에 (9부)	수행교과(35)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6)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7) (현)의 발원(발원)
11시	3000에 (10부)	수행교과(38)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39) (현)의 발원(발원)	수행교과(40) (현)의 발원(발원)

대한불교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 백련암

■ 교통안내
* 부산 ↔ 해인사 / 교통비 10,000원 (교통비는 개별부담) / 부산역 아리랑 관광호텔 앞 / 기수별 입재 당일 오전 7시 출발 서울(남부터미널), 대전·고령까지 고속버스 이용, 고령에서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 대구(서부정류장) :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 광주 : 함양까지 고속버스 이용, 함양에서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 기타 지방 : 개별 교통편 이용

■ 준비물
* 일용품 :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손수건 등 * 의류 : 비치(취리니)속옷, 양말
* 필기도구 : 노트, 볼펜(검정) * 침구 : 담요 또는 침낭이나 얇은 이불
* 기타 : 자신에게 특별히 필요한 용품
* 그밖에 불필요한 물건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